



| 비 온 뒤에 굳는 땅처럼?

허규 베네딕토 신부 | 가톨릭대학교 성신교정 교수

이해하기 쉽지 않은 예수님의 말씀들이 있습니다. 학자들의 견해를 듣거나 이리저리 생각해 봐도 여전히 쉽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오늘 복음의 말씀 역시 그렇습니다. 세상에 평화가 아니라 분열을 일으키러 오셨다는 예수님의 말씀은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분열된 가족들 사이에 평화를 주시는 것이 먼저가 아닐지, 아니면 분열 뒤에 더 친밀해진다는 말씀인지? 이런 의문들이 생겨납니다.

복음 말씀은 '불'로 시작됩니다. 불은 성경에서 다양한 상징으로 사용됩니다. 신구약 전체에서 찾을 수 있는 불은 정의를 세우는 하느님의 심판을 나타내는 상징입니다. 또 불은 하느님의 현존을 나타내기도 하고 성령을 나타내기도 합니다. 예수님의 세례는 죽음과 관련이 있습니다. 세례가 이 세상에서 죽고 하느님의 자녀로 새로 태어나는 것을 나타내듯 오늘 복음에서 말하는 세례는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을 의미합니다. 예수님께서서는 이 세상에 하느님의 정의가 세워지기를 바라는 의미에서 심판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짓눌림에도 구원을 이루기 위해 고난과 죽음의 길을 가야만 합니다.

루카 복음은 예수님의 탄생을 전하면서 그 의미를 이렇게 선포합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느님께 영광, 땅에서는 그분 마음에 드는 사람들에게 평화!"(루카 2,14) 예수님 탄생은 그 자체로 하느님의 영광이자 땅의 평화입니다. 하지만 오늘 예수님은 평화가 아닌 분열을 말씀하십니다.

이 분열은 종말론적인 심판과 예수님의 죽음이라는 사건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종말은 성경에서 빛이 없는 어둠이나 멸망, 두렵고 무서운 사건으로 표현됩니다. 또 종말은 전쟁이나 싸움을 통해서 표현되기도 합니다. 유대교의 전통에는 종말이 오면 친한 친구들 역시 서로 갈라져 싸우게 될 것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오늘 복음에서 말하는 분열은 종말의 배경에서 가장 가까운 사람들 사이의 분열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실제로 예수님의 세례로 표현되는 십자가의 죽음은 사람들 사이에 분열을 가져왔습니다. 일부 사람들은 예수님을 신성모독이란 죄로 십자가형에 처하길 바랐고, 또 다른 이들은 그분을 하느님의 아들로, 구원자로 받아들였습니다. 이런 상황은 십자가 죽음 이후에도 바뀌지 않았습니니다. 그분의 죽음은 사람들을 서로 갈라놓았고, 가장 가까운 사람들 사이에서도, 가족들 안에서도 마찬가지로입니다. 그리고 지금까지도 여전히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의 평화를 위해 세상에 오셨지만, 결과적으로 그분의 삶과 죽음은 사람들을 갈라지게 만들었습니다. 바꾸어 말하자면, 사람들이 예수님을 두고 서로 분열한 것과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평화는, 그 진정한 평화는 믿음 안에서 하느님과 깊은 관계를 맺을 때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같은 평화를 말하지만 적어도 신앙인에게 평화는 하느님 안에 바탕을 두는, 그 안에서 얻어지는 평화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청합니다. "주님의 평화가 항상 여러분과 함께."



성내동성당 서울특별시 강동구 성내로15길 58

성내동성당은 2002년 9월 둔촌동성당을 모본당으로 설립되었습니다. 둔촌동성당에 속해 있던 성내3동과 풍납동성당에 속해 있던 성내1동 및 성내2동 지역 신자가 성내동성당의 구성원을 이루었습니다. 새 성당은 2007년 6월 축복식과 함께 예수 성심께 봉헌되었으며, 성전 완공을 기념해 이루어진 대대적인 가두 선교를 통해 9월에는 296명의 세례자가 탄생했습니다. 2002년 설립 초기 약 4천 명이었던(주일미사 참여 864명) 신자는 성전 건축과 함께 신자들의 꾸준한 기도와 활동으로 지역 내 높은 복음화율을 올리고 있습니다.

김명중 시몬 신부 | 문화홍보국 차장

종암동성당 성내동성당 신정3동성당

